

삼성토탈, 삼성고분자학술상 시상

제1회 서울대 장정식 교수 수상 ... 관련 연구활동비 1000만원 지급

삼성토탈은 4월15일 석유화학기업 최초로 관련 학술상인 <삼성고분자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장정식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삼성고분자학술상은 고분자연구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과학자를 선정해 1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장정식 교수는 나노 사이즈의 고분자를 개발해 한국 고분자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4월15일 고홍식 삼성토탈 사장은 한국고분자학회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초과학 육성 없이는 기술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삼성고분자학술상>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삼성토탈은 2004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순수응용화학연맹(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 Applied Chemistry) 고분자 분과에 <삼성과학자상>을 시상한 바 있다.



<삼성과학자상>은 삼성토탈이 일정기금을 조성해 제정한 것으로 매년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긴 3명의 젊은 과학자를 선정해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토탈은 이밖에도 과학꿈나무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꿈나무 육성프로그램인 <화학탐구 프론티어 페스티벌>을 석유화학기업 4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산공장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꿈나무 과학교실>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삼성토탈은 앞으로도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이공계 살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장정식 교수는 195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고분자공학과(1978)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분자합성 석사(1983),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교 대학원 고분자합성 박사(1988) 학위를 취득했다.

<화학저널 2005/04/18>